『과학 수다』가 만나러 갑니다 - 후기를 대신해서

DOI: 10.3938/PhiT.25.028

노 의 성

K 선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새 출판계는 고민이 많습니다. ‘단군 이래 불황 아닌 적이 없던’ 출판계의 엄살이라 핀잔 놓으실 수도 있으나 엄살이라 하기에는 좀 엄혹한 게 사실입니다.

좀 과장하자면 읽기와 관련된 문명사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디지털 혁명’, ‘모바일 시대’라는 말도 이미 낡았을 정도이지요.) 거시 경제적으로는 소비/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이 한국 경제에서 현실화되고 있고 미시적으로는 독자들의 연간 도서 구입 금액이나 월간 독서 시간 등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출판 시장 자체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지요.

정부 정책적으로도 독서 진흥은 뒷전이고, 교육/입시 현장에서도 책임기는 눈살이 붉어 끝난 이후로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서 정가제 관련 법 개정으로 독자들의 출판 시장 접근성이 크게 나빠졌다고도 하지요. 그 결과 2010년 이래 5년 연속 출판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2015년에는 신간 중수조차 크게 줄었다고 하지요.

아무튼, 요즘 출판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이런 종류의 불멘소리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소설, 에세이, 아동서, 논픽션 분야를 가리지 않고, 베스트셀러 작가, 노장 작가, 신진 필자 등 저자에 관계없이 어떤 책을 언제 어떻게 내든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죠. 2015년 베스트셀러 목록이 고착화되어 한 책이 40주 이상 베스트셀러 1위를 하는 것은 그 책을 낸 출판사에는 좋은 일이지만 출판 시장이 활기를 잃어버렸음을 보여 주는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있을까요? 선배님께서는 출판은 고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솔루션 비즈니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종이 제 머리 못 깎듯 출판 관계자들은 자신의 솔루션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을 만들고, 책을 소개하고, 책을 판매하는 기존의 방법들이 모두 무력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분명 솔루션은 어디 있을 겁니다.

하나 그 솔루션은 아마도 출판 관계자들이 한 번도 탐사한 적 없는 곳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존 지식이 무력해지고, 기존 편집, 홍보, 판매 솔루션들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요소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솔루션은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도 아닐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이론 물리학자인 리사 랜들은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길지만 미지의 존재나 불확실성과 맞상대하는 게 직업인 물리학자들의 지혜를 빌리는 게 저희 출판 관계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유용할 것 같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던 일이 막히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 많은 작가들과 미술가들처럼 과학자들도 누더기를 깎듯이 진보해 나간다. 그것은 선형적인 과정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조각 맞추기 퍼즐의 어떤 부분은 맞추고 또 다른 부분은 메우지 못할 수도 있다. 메울 수 없는 빈틈이 나오면 언젠가 메워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잠시 미루어 둔다. 나중에 맞는 퍼즐 조각이 나오면 그때 맞추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론을 한번 읽었다고 모조리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언젠가 모든 조각을 다 찾아 맞추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빈틈을 만나면 안심하고 도중에 건너뛰거나, 필요할 때 되돌아올 수 있다. …… 몰두할 수 있다면 계속할 수 있다.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든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든 모두 연구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리사 랜들의 말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용기를 갖고 계속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를 가둔 문제 밖으로 나

저자약력

노의성 편집주간은 1997년부터 사이언스북스에서 <도둑맞은 미래>, <코스모스>, <통섭>, <개미제국의 발견>, <모든 사람을 위한 빅뱅우주론 강의> 등 해외 석학뿐 아니라 국내 필자의 저술도 꾸준히 발굴하여 출간해 왔다.

아가 해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책을 만들어 보고, 가지 않았던 곳에 가서 책을 소개해 보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과 만나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겠지요.

돌이켜보니 작년 저는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든 저를 가둔 문제 밖으로 잠시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칼 세이건 살롱’이라는 이름의 독자 대상 행사에서 경험했습니다. 칼 세이건의 다큐멘터리 ‘코스모스’ 1980년 오리지널 영상 13편을 상영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연구 SETI 전문가이자 과학 저술가인 이명현 박사님을 모셔 ‘코스모스’ 오리지널 영상에서 다뤄진 과학을 해설하고 그 내용이 지난 35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개괄하는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 『코스모스』를 홍승수 서울대 명예 교수님의 번역으로 새로 출간한 이래 수많은 독자들이 저희 책에 많은 애정을 보여 주었지만 저희는 그 애정에 제대로 보답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화질도 좋지 않고 영상 효과도 소박한 35년 전 「코스모스」 오리지널 영상을 몰입해서 보는 독자들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칼 세이건의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며 그의 유머에는 함께 웃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에는 공감하고 과학에 대한 애정 고백에 희열을 느끼는 독자들 앞에 칼 세이건이 다시 살아난 듯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던 콘텐츠를 되살려내고 새로운 의미의 숨결을 부여하는 독자들의 힘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파리를 틀고 있던 ‘공급자 중심주의’를 뒤흔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경험은 “『과학 수다』가 만나러 갑니다!”라는 이벤트에서 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웹진 《크로스로드》를 펴내고 있는 APCTP와 함께 기획 출간한 『과학 수다』(전2권)의 출간 이벤트였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과학 수다』의 대표 저자 세 분이 찾아가 강연하고 수다 떨고 대화하는 행사였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그 중 충남 홍성의 밝맑 도서관, 강원 정선의 고한 중학교, 경북 영천의 임고 중학교 세 군데를 선정해 9월부터 11월까지 저자 선생님들이 찾아갔죠. 저는 이 이벤트의 진행/접대/운송 스태프로서 따라 갔습니다.

세 번 모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기 분야의 정수(精髓)를 알기 쉬운 강연으로 풀어낸 저자 선생님들의 강연도 탁월했지만, 중학생들이 중심이었던 학생들과 청중들의 반응도 훌륭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자 선생님의

짧은 설명에서 교과서 몇 단원 분량을 뛰어넘는 깨달음을 담은 질문을 던졌고, 어떤 학생은 어떤 과학자도 쉬이 답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 저자 선생님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멀리서 오지까지 온 손님들을 위해 환영 공연으로 오카리나 합주를 하기도 했고, 초광속 중성미자를 주제로 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 프레젠테이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은 방문 학교로 선정되고 저희가 찾아가 때까지 『과학 수다』를 가지고 3개월 가까이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 화면 너머 온라인 서점의 판매 지수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진짜 독자들의 세계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대하게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의 시장을 포털과 온라인 서점 검색창의 사각형 안에 가뒀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군요.

아무튼 저는 이런 경험들에서 출판이 봉착한 위기를 타개할 솔루션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은 실마리를 가지고 책 만드는 법, 소개하는 법, 판매하는 법을 바꿔 보겠지요. 그러면 또 다른 경험과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솔루션’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다듬어 갈 수 있겠죠.

독자들의 힘은 강대하고, 시장은 광대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아니면 작게 말려 있어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렵니다.

독자가 콘텐츠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편집권을 가져간 시대, 신문, 방송 등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사업자 역시 그 권력을 잃고 플랫폼 사업자가 깔아놓은 공간에서 무한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저만의 솔루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지의 문제와 맞상대하기 위해 먼저 문제 밖으로 나간 선배들과 동료들, 심지어는 물리학자 같은 과학자들의 경험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 뵈 지가 오래되어 보고 드릴 게 많아 편지가 길어졌습니다. 출판계 갔더니 냇두리, 볼멘소리만 늘어났다 핀잔 마시고 많은 가르침 주십시오.

2016년, 선배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노의성 드림